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
2019. 06 vol.08



*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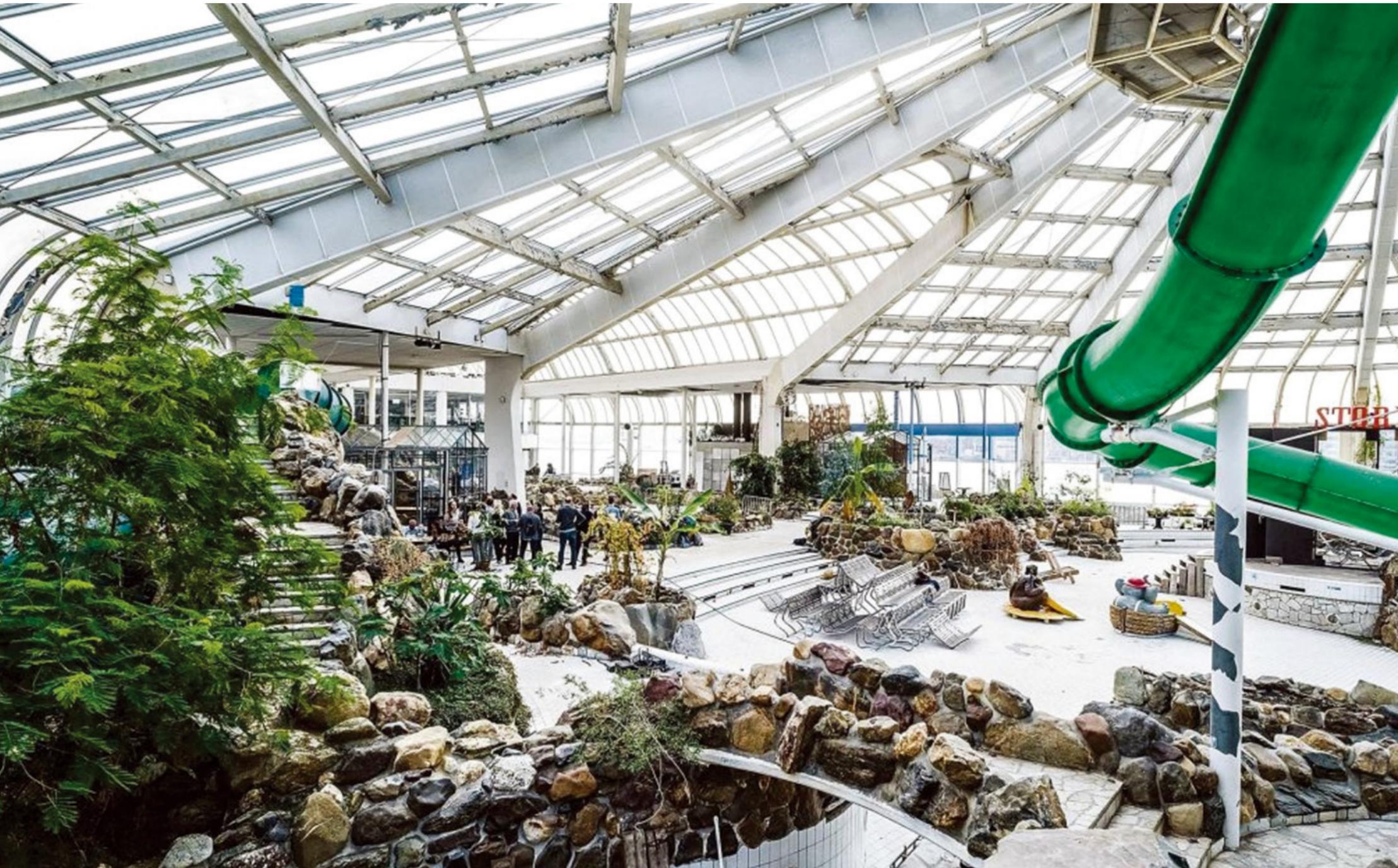
지역 경제의 선순환 이끌 든든한 새싹,
예비사회적기업

*
Meet up

버려진 공원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인천 서구 석남동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

*
Focus on

예비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블루시티(Bluecity)는 순환 경제 생태계 안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공동체다. 오래된 워터파크 건물을 활용, 3600평 규모의 유리 돔 건물에 폐목재 업사이클링 공방, 맥주 양조장 등 30여 개 소셜벤처들이 모여 자원을 재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운영중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인류가 10만여 년간 생존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의 힘 덕분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협력하며 척박한 환경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이지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자립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편요소를 개선하고자 힘을 모을 때, 도시의 생명력과 지속성이 더욱 강인해지기 때문이지요.

이번 호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각자의 재능과 아이디어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도시재생을 이끄는 선순환의 힘, 사회적기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Contents

*
*

06

Cover story

지역 경제의 선순환 이끌 든든한 새싹,
예비사회적기업

12

Meet up

버려진 공원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인천 서구 석남동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

18

Focus on

예비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김재현 산림청장

20

Carry on

생활 SOC의 아름다운 변신
영주시 공공건축물

24

Look at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를 바꾸는 방법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26

Get in

시원하게 펼쳐진 남쪽바다
거제도 여행

30

Theme map

도시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게스트하우스

*

32

News in

34

SNS in



사는 장소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특별한 인생, 행복한 삶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도시재생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선사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을 만나보세요.

도시재생 뉴딜

2019. 06 vol.08

발행인 김현미, 변창흠
발행처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일 2019년 6월 26일
통권 8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홈페이지 www.city.go.kr
블로그 blog.naver.com/newdeal4you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deal4you
기획·디자인 The SMC(02-816-9799)

<도시재생 뉴딜>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 이끌 든든한 새싹, 예비사회적기업

우리나라의 2019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 대에 머무르며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도시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양적인 성장과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를 넘어서 쇠퇴하는 도시와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생태계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섰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부흥 기여 등 다양한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 *

사회적기업 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국토교통형 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업의 유형은 다양하나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현재 1, 2차에 걸쳐 총 52곳이 지정되었고 올 6월 3차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창업비용 용자, 창업자간 교류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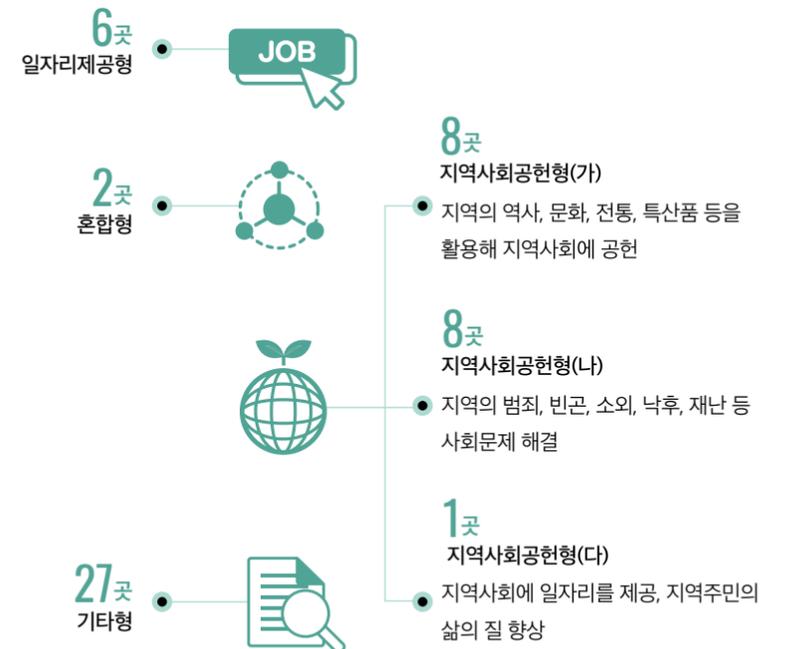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1, 2차 총 52곳)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요소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변화

- 진주 새뜰마을 협동조합

진주 새뜰마을 협동조합은 옥봉마을의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생활 개선과 수익 창출, 문화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옥봉마을 투어 프로그램과 로컬푸드 식당인 '옥봉루'가 대표적이다. 옥봉마을 투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해설사 과정을 수료해 가이드로 나서 옥봉마을의 역사적·문화적 스토리를 전한다. 로컬푸드 식당인 '옥봉루' 역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며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 사회혁신기업 더함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동체 공유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 아파트를 기반으로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주택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를 세웠다. 더함이 주택을 짓고, 입주민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한다. 더함은 앞으로 도시재생과 혁신공간 창출 등 다른 사회적부동산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사회주택 제공

- (주)녹색친구들

서울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괜찮은 환경의 주거 공간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사회주택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녹색친구들은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건축, 임대 등 분야별 전문성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친환경 주택', '공동체 마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사무실 등 비주택시설을 세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문화 콘텐츠 발굴

-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은 없애고 다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살리며 재생하는 방식으로의 도시 환경 변화를 디자인한다.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을 문화로 이어주고 이웃관계를 디자인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확장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업 분야는 교육 컨설팅, 장소 디자인, 도시문화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각 분야에 따라 마을 강사 양성, 커뮤니티 공간 기획, 유희 공간 활용, 마을 축제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로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낙후된 마을에 생활 SOC를! - 경남 진주 옥봉마을

가족과 함께 부모님의 고향인 진주에 방문한 A씨는 옆 마을에서 진행되는 옥봉문화체험마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을 어르신이 가이드가 되어 말티고개, 진주향교, 옥봉, 은열사 등을 돌며 마을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전통 연 만들기와 전통 놀이, 추억의 과자 체험전은 아이가 특히 좋아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로컬푸드 식당인 옥봉루를 찾았다. 주민들을 위해 새로 지은 커뮤니티센터를 마을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곳의 수익금은 마을축제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고 한다.



문화로 소통하는 우리마을 -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70대 Y씨는 최근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도자기로 멋진 꽃병도 만들었다. 마을 사랑방에서 진행한 공예 수업 덕분이다. '다복마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공간에서 주민들은 생활공예도 배우고 탁구도 친다. 얼마 전에는 작은 축제인 '누구나 놀이시장'이 개최되었다. 물총싸움, 골목드로잉, 버룩시장, 리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셰어하우스

- 서울 마포구 사회주택 셰어하우스

“핫 플레이스에 위치한 복층 원룸에서 살고 싶어요. 계약 기간이 길고 보증금은 적었으면 좋겠어요” 올 봄 대학에 입학한 H씨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H씨가 선택한 곳은 사회주택으로 지어진 셰어하우스다. 보증금은 저렴하지만 건물은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되어 세련되고 안전하다. 작은 도서관과 쉼터가 있어 세입자들끼리 모여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취업 정보를 공유한다.



육아부터 공유 경제까지, 공동체형 아파트

-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5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 J씨와 P씨는 결혼 7년만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들이 입주한 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다. J씨 부부는 입주 전부터 정기적으로 조합원 설명회에 참여해 주택 시설과 현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살 집에 대해 미리 정보를 듣고 의견도 개진하니 집에 대한 만족도도 커졌다. 입주 후에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공동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 바쁠 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자동차 공유업체, 사회적 청소업체 등과 협업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도 있다.



버려진 공원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인천 서구 석남동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

꺼져가는 도시의 심지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는 일.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꿈꾸는 최종 목표이다. 과거에서 멈춘 도시가 아니라, 과거의 아늑함과 정겨움을 살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인천 서구 석남동도 동참했다. 살기 좋았던 동네에 어느 날부터인가 석유 냄새가 진동하고, 소음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결국 모두 떠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자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 김윤희 위원장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소매를 걷어 부쳤다. 쓰레기만 쌓여 가던 삭막한 뒷골목에 한 평의 기적을 스스로 일군 석남동 '어벤저스'의 고군분투기를 소개한다.

◀ 주택가 중심에서 쓰레기만 쌓여 가던 한평공원이 동네 주민의 참여로 사랑방으로 변신했다.

▼ before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를 함께 한 인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
한평공원은 인천 서구 율도로 16번길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인천 석남동은 환경, 안전, 교육, 주거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네다. 특히 2013년 SK인천석유화학이 들어서면서 냄새와 소음 등의 유출로 기업과 주민 간에 갈등이 계속돼 오고 있다. 덕분에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 현재는 황량한 느낌마저 드는 오래된 주택들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쾌적한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주민 조직이다. 마을을 슬럼화 시켰던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부터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까지, 석남동의 변화를 위한 일이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실업 및 저급 일자리 문제, 상권 약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저층주거지 관리 문제, 주민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해결까지 극복해야 과제가 너무 많았지만, 범대위

김윤희 위원장은 가장 먼저 한 평이라는 작은 공간부터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버려진 공원을 쉼터로 되돌리기 위한 석남동 어벤져스의 도전이 시작됐다.

버려진 공원을 되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땀방울

동네 한 켠에 놓여 방치되어 있던 공유지 한 평 공원은 불법 쓰레기장,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 전락해 갔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쉼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소통과 행사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범대위 소속으로 도시재생대학 심화반을 졸업한 '행복만들기조'가 있었다. 이들은 먼저 쌓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상생마을 주민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공모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서구청의 도움을 받아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취약계층에 마을관리자, 건물 청소 관리 등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실업률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얼마 전에는 주민들끼리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플리마켓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영화 상영회, 음악회 등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한 평의 공간에서 펼쳐는 변화의 날개짓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동네 사랑이 뜨거워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집 앞의 한 평 공원에 시시때때로 모여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동네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살길만 찾느라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을을 위한 일을 함께 헤쳐 나가는 상생마을을 스스로 일구게 됐다.

이 외에도 한평공원이 일으킨 나비효과는 놀랍다.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파트 관리실처럼 고장

이나 수리에 대한 도움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마을 관리사무소'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냄새와 소음을 친환경적으로 해소하는 차폐녹지 인근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은 '율도에서 처음 만나는 인문학 교실'이라는 사업을 통해 '신나는 국악교실'과 '어르신들 식(食)문화 비법 전수 교실'을 마련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고유 콘텐츠를 강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주민의 하나된 목소리가 나비의 날개 짓이 되어 상상도 못한 기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서구 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마을 환경 신문 고임과 동시에 그 목소리를 커다란 힘으로 만들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 교육을 진행해 역량 있는 현장 전문가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재생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돕고, 서구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결 고리로서 서구의 환경 재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재생 프로젝트 이후 한평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리는 등 열린 공간으로 변했다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
김윤희 위원장 인터뷰

Q. 석남동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가 지난해 도시재생 한마당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우수한 사업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이슈로 석남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 도중에 서로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이라는 깨달음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일부부터 의기투합해 마을을 위해 나서는 견고한 주민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서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한평공원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무엇이었나요?

단지 예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석남동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수 십년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한평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박하지만 평화롭게 보내던 시간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주민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모았더니 한 평의 기적 이 천 평이 넘는 복합 공간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Q. 사업 진행 중 생긴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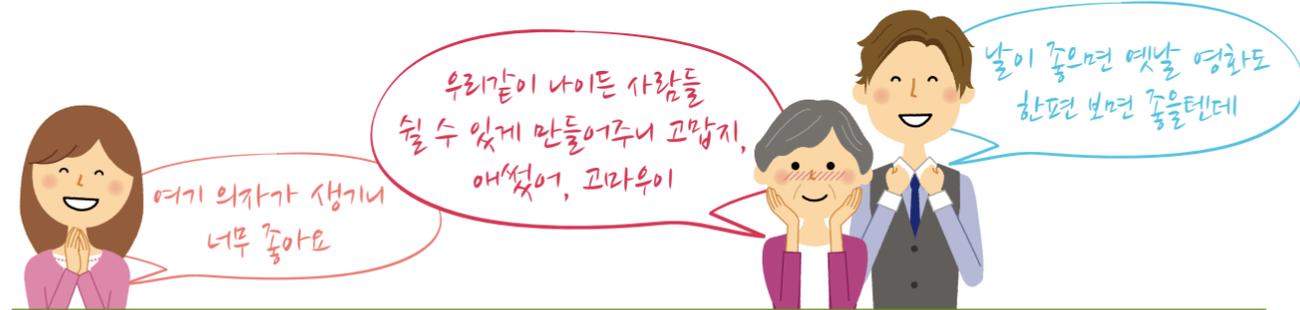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한 것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주변 모든 유리창을 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 나도 버려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지적하면 상관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



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토요일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위기에 관해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삼짱돈을 모아 강사비까지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곧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주민 의식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경제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마을 관리사무소' 사업과 '울도에서 처음 만나는 인문학 교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가가호호 방문해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며 알차게 마련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서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시행 가능한 예산 또는 교육 지원을 받아 꾸준히 석남동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 역시 석남동의 주민으로서 마을 사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박형렬 센터장 인터뷰

Q. 인천 서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2017년에 설립한 센터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 진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총괄 코디네이터인 청운대 장동민 교수 등 유관 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Q. 인천 서구만의 도시재생 사업 특징은 무엇인가요?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도금공장, 폐기물처리수탁업체 등 기피 시설이 준비해 있는 서구는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이 절실한 곳입니다. 특히 SK석유화학공장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마을'을 모토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노인,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상생을 중심으로 함께 대화하고 조율하며, 설계를 위한 회의,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한평공원 재생 프로젝트에 도시재생대학 출신 주민 단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대학에서는 기초과정을 통해 마을의 쉼터와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심화과정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 마디로,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석남동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바로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추진됐습니다. 센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주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남안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준공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주민공용이용시설로 운동시설, 북카페 등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 밖에 불법주차 방지, 보행로 개선, 마을 테마길 조성 등 도로개선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나눔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인 마을공방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한 평 공원 플라마켓을 마을 축제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보통 사람이라면 도시재생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산림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던지는 뜬금없는 화두에 그 궁금증이 커질 것 같다. 그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글 김재현 산림청장



시장경제의 대안, 사회적경제의 기초

나는 대학에 재직 중일 때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 칼럼은 산림청장이 아닌 사회적경제 전문가로서 쓰는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가지는 분배의 불평등이나 공동체성의 와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그중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물리적 도시재생은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칫 시장경제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아마도 현명한 독자들과서는 도시재생에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공동체(EU)에서는 READER라는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ADER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먼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무엇이며, 지역의 비전과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물리적 재생사업에 재정과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방문했던 오스트리아의 동쪽 국경 근처에 위치한 보헤미안 포레스트(Bohemian Forest)지역의 경우 여러 마을공동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할 하나의 일치된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EU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막대한 물리적 투자를 하였지만, 주민공동체가 주도하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사업 100여개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100여개의 사회적경제사업 중 상당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의 형태이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교집합이 필요

이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시재생에 예비사회적기업의 형태를 접목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겠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녹치 않

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도시재생 이전에 지역의 거버넌스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역발전의 비전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현실 적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방식인 물리적 도시재생과 수평적 의사결정 방식인 사회적경제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공동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물리적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교집합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LH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집합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을 통한 교집합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그루매니저라고 부르는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이들이 지역의 잠재자원과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한 공간을 통한 교집합의 형성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재생을 통해 형성된 공간에 공동의 공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효할 것 같다. 경상북도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내의 복지시설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도시재생과 예비사회적기업을 결합한 방식이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느슨한 공동체 재미있는 아파트를 추구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WE STAY)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집 아이도 위스테이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도록 정부와 LH의 배려가 필요하다.

● 김재현 산림청장 Profile

- 現 산림청 청장
-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역임
- 前 건국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센터장
- 쓰쿠바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02년 환경부장관표창, 1998년 농림부장관표창 수상

생활 SOC의 아름다운 변신, 영주시 공공건축물

인구 11만의 작은 도시 경북 영주. 가흥신도시가 생기고, 영주역이 이전하면서 사람들로 들끓던 원도심은 평일 낮에도 휴일처럼 조용한 구도심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저 '옛날 동네'라 부르던 이곳이 다시 영주시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색 없던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들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넘쳐 나며 활기를 띤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힘. 빛을 잃은 도시에 색채와 디자인을 입혀 새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그 자체가 영주의 상징이 되었다.

도움 정신구 주무관 <영주시청 도시과>, 조준배 <前도시건축관리단장, 現SH시건축관리단장>

빛을 잃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작된 영주시 공공건축의 핵심 모델인 노인복지회관. 영주시 공공시설의 재생에 초점을 두면서 '공유, 화합'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세대가 공간을 함께 쓰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유와 화합의 공간으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영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해 민간 건축 전문 기관 및 인력과 시가 함께 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불리는 정부의 동네 공공건축 투자 확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국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중앙선, 영동선, 북영주선 3개의 철도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이 소외된 영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삼각지. 이곳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들어선 두 개의 시설은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단절된 섬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공간은 모든 시민들이 편견을 던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공원으로 재탄생 했다. 독특하고 안락한 디자인,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져 저녁마다, 주말마다 시민들이 찾는 놀이터이자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시민 활동을 매개하는 영주시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노인만의 전용 공간이 아닌 누구에게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세대와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영주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의 긍정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 면적이 넓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는 장애인 복지관은 서로 다른 레벨의 마당을 가진 이색 공간으로 조성되어 영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손꼽힌다.





민원인 공간을 중심에 두고 3면으로 출입하는 풍기읍사무소

- ▲ 도서관
- ▼ 중정이 있는 미술관 같은 실내수영장



도시와 마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실내수영장, 풍기읍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밖의 공공건물도 역사, 건강 등에 초점을 두어 더욱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며, 마을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 디자인에 있어 하나하나의 건물을 따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 디자인과 스토리케 이어지게 했다.

실내수영장과 대한복싱 전용훈련장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고층창과 중정으로 자연광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수영장은 자연스럽게 대한복싱 전용 훈련장과 연결되며 단지 체육시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적 편의와 지역 특성이 만난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풍기읍사무소는 일반적인 읍사무소 개념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삼면으로 열려있는 출입구는 각각 광장, 구도심, 남원천, 보건진료소 등 주변 거점으로 향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 1층 민원실의 교차로가 '인(사람 인)' 자의 형상을 하고 있

는 것도 이곳이 어떤 목적으로 열려 있는 곳인지 짐작케 한다. 영주수도사업소 부속 창고의 철거 계획을 철회해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축가들의 힘으로 젊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은 공간으로 거듭났다. 전면의 넓은 주차장을 향해 열리는 파사드는 무대로, 주차장은 객석으로. 영주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로 변신한다.

그밖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외관, 좌식생활형에 맞는 공간 계획을 통해 완성된 조제보건진료소, 동네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인근 대학생들에게 오픈 공간으로 제공되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 학사골목 Y-center, 구 경찰서 민원실을 근대역사 문화공간 안내 공간으로 조성한 문화파출소 등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 영주시민들은 휴식과 삶을 즐기고 있다.

건물의 변화, 마을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변화

'영주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이라고 불린 이 공공건축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과는 무관하게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

간 총괄건축가를 역임하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가 이뤄지던 것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큰 성과를 거뒀다.

덕분에 영주시는 지난 10년간 국내 건축 대상과 디자인 대상을 휩쓸고 있다. 한국 건축 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신인 건축사 대상 등 20여 개로 작은 공공 건축물이 받은 수상 성적은 화려하다. 또한 공사비용 역시 기존 공공 건축물과 비슷하게 설계해 효율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새 의미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영주시 공공건축에 참여한 최초의 도시건축관리단장인 SH도시건축관리단의 조준배 단장은 "공공건축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인이기에 주민의 삶의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지역 만의 역사성, 장소성, 주변지역 경관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통해 영주는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로 무한 변신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를 바꾸는 방법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6월부터 여덟 개 지자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로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다.

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이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포용 사회의 필수 과제,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는 정책 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분권화’를 지향한다. 국가 주도의 사회서비스에서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올해 3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과업으로 부상했다.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주력 사업이자 돌봄, 의료, 주택, 문화, 교통,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적·범사회적 과제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우선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했던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탈시설화 전략에 따라 자신이 살았던 집이나 중간거주시설로 돌아오는 일부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 업체가 눈에 띄게 늘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애를 겪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조만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특정 대상이 아닌 모두의 문제, 즉 우리가 먹고 살고 돌보고 누려야 할 생활 전반에 변화가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즉 커뮤니티케어는 어떻게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가깝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자체가 삶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커뮤니티케어다.

주민 중심, 마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동네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내 집은 거주하기 적당한가, 사는 데 불편함은 없는가, 필요한 서비스는 적절하게 제공되는가, 주변의 편의시설은 충분한가, 이동에 문제는 없는가, 어울릴 만한 친구는 있는가, 무얼 하며 지낼 수 있을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커뮤니티케어는 결코 건강·돌봄 서비스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다. 거주 공간을 만들고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고 골목과 계단, 주변 시설을 이동편의를 고려해 개선하는 것까지 그간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인식했던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이고, 나아가 문화, 일자리,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조건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공간의 재구성을 담당해온 도시재생 분야는 커뮤니티케어 구현을 위한 전 과정에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의료산업과의 융합을 꾀하는 커뮤니티케어 리빙랩은 물론, 주택과 중간거주시설, 다양한 형태의 교류공간과 공동작업장 등 거처를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의 중심에 도시재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개발과 공급을 넘어 마을과 사람의 스토리를 잇는 과정이고, 그 자체로 도시재생의 진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주체들의 역량과 재능이 만나는 협동과 연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보건복지, 주택, 환경, 문화, 교통, 사회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포괄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과 돌봄이라는 주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부서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부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우리 삶의 필요에 맞게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민관산학 공동의 노력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본격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김연아 Profile

- 성공회대학교 사회적이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시원하게 펼쳐진 남쪽 바다 거제도 여행

탁 트인 에메랄드 빛 바다, 산뜻한 바람과 푸릇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섬. 흔히 제주도를 떠올리기 쉬운 수식어들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여행지가 있다. 한려해상수도의 수려한 바다 경관과 다양한 관광 명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 스토리와 풍부한 특산물, 먹거리까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거제도이다. 섬이지만 자동차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어 마음의 거리도 가깝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으로 컬러풀하게 변신한 작은 어촌 도장포마을은 거제도의 숨은 매력을 한 가득 품고 있어 더욱 신비하다. 이번 여름, 시원한 바다를 품은 감성의 섬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거제도

GEOJE



- 1 도장포마을에 들어서면 알록달록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가 따뜻하게 맞아준다
- 2 도자기를 테마로 한 벽화들로 이어진 길은 마을 꼭대기 아담한 도자기공원으로 안내한다
- 3 서숙양 작가의 조형물 '품다(BROOD)'와 아트월 등이 세워진 메인 광장

지중해를 닮은 파스텔 빛 매력, 도장포마을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드넓은 남해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수 많은 항구와 해수욕장이 즐비하다. 특히 칠백리 해안도로를 따라 쪽 달리다 보면 이르는 거제도의 끝 해금강에는 거제도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남부면에 위치한 도장포마을은 도장포항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다. 도장포라는 이름은 고려 현종 때 일본과 무역하던 중국 도자기 배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도자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타일을 사용해 변색 걱정도 덜고 벽화의 작품성도 한 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벽화를 따라 쪽 걷다 보면 다다르게 되는 마을 꼭대기에는 작은 '도자기공원'도 있다. 알록달록하게 어촌 고유의 돌담을 채워 넣은 벽화는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해준다.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 길과 옹벽에 색채를 더함으로써,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파스텔 톤의 감성 마을이 탄생했다.

도장포마을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고유의 색깔을 가진 곳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거제시의 도움을 받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도장포 마을 고도화 특화 사업'에 참여한 서숙양 작가의 '품다(BROOD)' 조형물과 아트월 등이 메인 광장에 설치됐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바다색의 조형물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해주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술성 높은 디자인으로 돌담, 골목길, 지붕, 입간판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는 도장포마을은 한국의 산토리니를 꿈꾸고 있다.



4



5



6

탁 트인 바다 위의 그림 같은 시그니처,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도장포마을을 다 둘러봤다면 바로 옆, 잔디로 이뤄진 민동산 위에 솟아오른 풍차로 가보자. 이 곳이 바로 해금강에 오면 저절로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제도 최고의 명소 '바람의 언덕'이다. 방목된 염소들이 살던 곳인데, 특유의 경관으로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풍차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고, 남해의 포근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해풍을 맞으며 시원스레 펼쳐진 전망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도장포마을 입구의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신선대도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다. 신선이 쉬어 가는 곳이라는 이름답게 바다를 향해 절벽을 이루고 있는 기암괴석 위의 전망대에서 거제도의 경관을 유유히 둘러볼 수 있다. 바위까지 돌계단 길이 잘 깔려 있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바다의 소리를 가까이 들으러 가도 좋을 것이다.

- 4 도장포마을 바로 옆 민동산 꼭대기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 5 바람의 언덕에서 바라본 도장포마을 풍경
- 6 바람의 언덕에서 길을 건너면 보이는 신선대

아픈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돌아보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아바타 포

이토록 아름다운 볼거리가 풍부한 여행지이지만, 사실 거제도도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으며, 유배지와 전쟁 포로수용소로 활용되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까지 인민군 포로 15만, 중공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3천 명의 포로를 수용했던 포로수용소의 잔존건물과 함께 박물관과 체험시설을 갖춰 공원화 한 곳이다.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기도 했다.

유적공원은 전쟁, 포로, 복원, 평화 4개의 테마로 이뤄져 있으며, 디오라마관, 역사관, 포로생활관, 무기전시장과 함께 각종 체험 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계룡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모노레일과 더불어 롤러코스터와 짚라인을 접목한 '아바타 포(Avatar POW)'는 낙차와 스피드를 통해 포로 석방의 전율을 느끼게 해 인기 체험 요소로 등극했다.

- 7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곳이다
- 8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해 잘 알려진 메레디스 빅토리 호
- 9 포로 석방을 체험할 수 있는 짚라인 시설 '아바타 포'



7



8



9



식도락 여행 Tip. 게장 정식

대구탕, 굴 구이, 멥게(성게)비빔밥, 도다리숙국, 물메기탕, 멸치쌈밥까지 고유의 싱싱한 해산물을 이용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거제도이지만, 해산물을 자주 접해 보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낯설기만 할 터. 이때 친근하면서 산지의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장 정식'을 선택하면 실패가 없다. 간장게장에 양념게장, 간장새우에 거제 9미(味) 중 하나로 꼽히는 볼락구이, 그리고 미역국, 총무 김밥, 어묵 등 호불호 적은 거제의 맛을 한 데 모은 정식 메뉴로, 게장 메뉴는 무한리필까지 가능해 거제의 넉넉한 인심으로 마음까지 불러온다.

도시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게스트하우스

여행에서 멋진 풍경이나 다양한 볼거리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숙소다. 도시재생지역에는 낡은 건물을 개조하거나 사회적기업, 주민협동조합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춘천의 봄엔 게스트하우스는 청년 창업자들이 나서서 빈집을 활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주변의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생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주 하숙마을과 수원 행궁동 한옥 노아재 등은 구도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며 구도심의 다양한 관광시설과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여행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휴식과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활기를 전하는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를 만나보자.





자율주택정비사업 1,2호 준공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 2호 준공식이 4월 30일과 6월 13일에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의 50% 수준인 27억 1천만 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되었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수단으로써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9.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17일,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도시재생 관련 지자체, 기관, 전문가, 활동가, 주민 등이 모여 도시재생 추진성과 우수기관 시상 및 정책발전을 위한 발표 등으로 대한민국 도시재생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각 지역의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를 선정해 수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필요한 대상지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조명하고, 민간기업과 단체, 일반인,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안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와 지속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한다.



규정 완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가로(街路)주택 정비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가로 구역 1만㎡ 미만'이라는 정비사업 면적 조건을 시·도 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 넓은 가로 구역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한 곳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앞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 모집공고

국토교통부, LH는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260명을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은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120여 곳에 배치되어 지역자원조사, 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홍보, 자율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 도시재생 지원기금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5월 24일 채용 공고하여 6월 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6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세부 전형단계,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별 직무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에 게시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에 입장하니
시간가는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자꾸 들어가보게되네요.
재생뉴딜사업 주민주도 인천만부마을 관리협동조합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관찮아서 매력쩔어!!!
- 딸기코수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시급하게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재정비하고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켜
성기넘치고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활기찬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
우리동네에도 적극 환영합니다!!
- 발음이



도시재생 뉴딜
블로그 웹진
퀴즈 당첨자 소개
개성 특색! 도시재생 사행시

도망치듯 살던 곳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골은 아니지만 큰나무 아래 모여 막걸리 한잔하는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동네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때 모두 슬퍼했지만 이전 아니에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동네 모습을 간직한채 더 좋아지거든요~
- 노란자전거



도로 옆 페인트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들
시선을 빼앗는 흉물스러움이 물론 보여요.
재(제)대로 된 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낙후된 그 곳을
생그롭게 바꿔주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 간식



도시가 새롭게 재생이 되면
시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도시경쟁력이 회복되고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생기가 돌은 우리동네 살리기의 이등 공신이 될 거예요^^
- 민재양bin



🔍 국내 여름휴가지 추천! 블로그 × 매거진 CROSS QUIZ!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에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하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세요.
참여자 중 33명을 선정, 30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를, 3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19년7월 1일 ~ 7월 21일)

Mission. 여름휴가는 도시재생지역 어때?
뉴트로한 감성이 묻어나는 도시재생 여행지를 소개해주세요. 도시재생 지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장소 추천 이유를 한줄평으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에 소개된 여행지는 웹진(https://www.city.go.kr/web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사연은 9호에 소개될 예정이며, 댓글 당첨자 3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A. 퀴즈 답변 작성하러 가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deal4you)에 접속하면
퀴즈 참여가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29초영화제

2019.6.3~7.2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



주 제 |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

- 살기 좋은 우리 동네의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 도시재생뉴딜로 새로워진 공간 이야기

예시) 따뜻한 사람이 모여 사는 우리 동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매공장이 문화예술단지로!

접 수 기 간 | 2019.06.03(월)~07.02(화)

출 품 자 격 | 제한 없음(국내 외 누구나)

부 문 | 일반부, 청소년부

시 상 식 | 2019년 7월 중순(추후 공지 예정)

총 상 금 | 1,500만원

접 수 방 법 | 29초영화제 홈페이지(www.29sfilm.com)온라인 출품(업로드)

출 품 구 격 | 29초 길이의 모든 영상(제목, 크레딧 제외)

- 해상도 : 1920 x 1080, 1280 x 720
- 프레임 : 29.97fps(권장), 24fps
- 포맷 : mp4(권장), mov, mpg, avi, wmv 등 표준코덱 지원

주 최 |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경제신문

주 관 | 29초영화제사무국

문 의 | 전화 02-360-4029, 이메일 director@29sfilm.com

